

[무형문화유산순방]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민족악기 제작기예의 맥을 잇는 사람

■ 소리로 엮는 민족의 혼, 86세 장인 조기덕의 일생을 건 집념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그곳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민족악기 제작기예'를 지키고 전승하면서 86세 고령에도 현역에서 민족악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의 조기덕 소장이다. 그가 민족악기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40여년 세월이 흘렀다. 파산 위기에 처한 공장을 인수해 국내 최고의 민족악기 연구 및 생산 기지로 일떠세운 조기덕 소장, 그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악기의 연구와 발전, 전승에 대한 사명감으로 로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 민족악기와의 인연, 그리고 일생을 건 추구

조기덕 소장이 민족악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88년도의 일이었다. 당시 연길시조선족악기공장은 경영 부진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연길시정부는 시경공업국 생산계획과 과장으로 일하던 조기덕에게 공장장 중책을 맡겼다. 그것이 그와 민족악기 인연의 시작이었다.

공장을 인수한 조기덕은 즉시 개혁에 나섰다. 악기의 품종과 품질 향상에 주력했고 중국 전역에서 량질의 원자재를 도입했으며 한국 등 해외시장 수출을 목표로 삼아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그의 혁신적인 결정중 하나는 가야금, 아쟁, 북, 장고 등 주요 민족악기의 원재료를 기존의 합판에서 오동나무 원목으로 대체하고 전환한 것이었다.

“오동나무 원목은 울림이 좋고 소리 전파가 뛰어나며 직경을 크게 할 수 있어 악기의 음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품질이 훨씬 뛰어난 민족악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받아들인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없었다면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악기의 우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제작과 발전에 일생을 바치는 집념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민족 언어문자, 복장, 음식과 마찬가지로 민족악기 역시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지켜나가기 힘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 50여종의 민족악기 생산, 민족악기 전승과 발전의 현주소

조기덕 소장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는 이제 5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민족악기와 공연용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민족악기생산연구소로 성장했다.

장고, 북, 민고, 소고, 편고, 아박, 모듬북 등 10여종의 타악기는 물론 퉁소, 피리, 젓대, 생 등 관악기에 가야금, 아쟁, 거문고, 해금, 비파 등 현악기들, 그외에도 상모, 조개 등 고정음이 없는 공연 도구를 까지 생산해내고 있다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 조기덕 소장

“우리의 민족악기는 소리가 우아하고 오래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연변에서 치르는 여러가지 대형 행사의 공연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참여해 민족대단합의 거창한 장을 이룹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악기들이 문화예술의 한가운데 뚜렷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대단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조기덕 소장이 말하는 민족악기의 우수성과 특성은 더 있다

■ 조선족 악기의 우수성, 그리고 연구와 전승 발전의 사명감

조기덕 소장의 소개에 따르면 조선족 악기의 우수성은 이제 연변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기덕 소장이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를 설립한 후 40여년 동안 자치주 창립 대형 경축대회 때마다 연길시민족악기공장에서 생산한 상모, 소고, 장고, 북 등 민족악기들이 집체무표현에서 이색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곤 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연들은 세상에 조선족 민족악

기의 우수성과 정제로움을 널리 알리었는데 조기덕 소장의 생애에서 가장 자부심 넘치는 장면으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소리가 우아하고 오래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연변에서 치르는 여러가지 대형 행사의 공연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참여해 민족대단합의 거창한 장을 이룹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악기들이 문화예술의 한가운데 뚜렷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대단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조기덕 소장이 말하는 민족악기의 우수성과 특성은 더 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조선족의 장고, 소고 등 타악기를 광범히 사용하고 있으며 북경대학, 칭화대학, 중앙민족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등 유명 대학들의 정규 교육과정에도 조선족 악기 교수과정이 포함되어있다.



“조선족 장단이 무용, 노래, 음악 등 전 과정 교육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소리가 우아하고 오래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장단과 가락이 풍부해 조선족 악기를 잘 다루면 다른 악기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됩니다.”

하남성 주마점시에는 조선족 민족악기를 사용하는 200여명의 민간 장고팀이 있어 갈춤, 삼모춤 등으로 각종 지역 경연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멀리 신강위글자치구 카스대학에서도 교수용으로 장고 70여개를 대량 주문해 갔다. 조기

덕 소장은 “현재 거의 매일 전국 각지에서 조선족 악기 주문 및 문의 전화가 들어온다.”고 전하면서 그 수요와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선족 민족악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족악기 연구와 생산은 조급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민족악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그 많은 수요를 누가 채워주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악기 전통을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기덕 소장이 고회의 나이에도 현역에서 민족악기 연구와 전승 발전에 매진하는 이유이자 그가 느끼는 사명감의 근원이다.

■ 국가의 지원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포부

조기덕 소장 그의 연구소는 국가로부터 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 민족악기 제작기예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는 그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이후 연구소는 무형문화유산성과보호시범기지, 중국조선족악기생산기지, 길림성소수민족문화전승기지 등으로 지정되며 그 명성을 공고히 했다.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전승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성, 주, 시 당정 지도자들도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물질량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처럼 규모가 크고 생산능력이 완벽한 생산형 악기 연구소는 전국적으로도 없다.”고 말하는 조기덕 소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미래에 대한 조기덕 소장의 포부는 더욱 크다. 연변이 관광재이 많이 찾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민족악기를 소재로 한 문화창의제품(열쇠고리, 가방고리, 관상용 소형 악기 모형 등) 개발을 진행중이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중국민족악기’ 온라인 쇼펄 플랫폼 등록을 완료, 국내 우수 민족악기 기업들과 협력해 온라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악기 수출 규모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 더 많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족악기의 대중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에는 국가급 전승인 2명, 성급 전승인 1명, 주급 전승인 5명 등 핵심 인력이 포진해있는데 이들이 20여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기술난관을 함께 연구, 돌파하고 있다.

“우리 앞세대들은 민족악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숨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족악기는 우리 전 민족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후세들이 민족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참여하며 이 소중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86세의 나이에도 민족악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발전을 위해 오늘도 연구실과 공장을 누비는 조기덕 소장, 그의 손에서 탄생한 하나하나의 악기에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넘어 한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조기덕 소장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민족의 소리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민족문화 장인이기도 하다. /안상근기자

리광인교수

우리 역사 연구 50주년 기념 좌담회 상해서



‘리광인교수 우리 역사 연구 50주년 기념 좌담회’가 10월 19일 상해에서 있었다.

화동조선족주말학교, 상해조선족로인협회, 상해진달래가야금팀을 비롯한 상해의 여러 단체 회원 및 북경, 심양, 남경, 항주, 소흥 등지에서 달려온 지성인 70여명이 이날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역사학자와 작가로 불리는 리광인교수는 평생을 조선족 역사 연구에 바쳐가는 조선족사회 지성인이다. 화동현광평농장에서 사업하던 시절인 1975년 리광인은 농장 당조직의 지지로 현재 각지를 다니며 광평농장사를 현지 조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빛나는 항일력사 자료를 널리 수집하면서 항일력사 연구에로의 뜻을 굳히었다.

1978년 10월, 연변대학 조문학부 대학생으로 된 후 리광인은 역사학자의 뜻을 실제 행동에 옮겨 과외로 항일력사 공부를 힘있게 내밀었다. 대학 재학 시절 리광인은 중공당사를 가르치는 최후태교수님을 계몽수승으로 모시고 항일력사 연구의 나라를 펼치였다.

대학 2학년 때인 1980년 여름방학 기간 리광인은 할빈의 동북역사기념관을 견학하고 돌아와 항일력사 공부

와 함께 아직 생존해있는 우리 민족의 항일지사들에 대한 현지 방문을 본격적으로 추진, 선후로 수십명의 항일지사들을 방문 취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변일보》에 항일력사전기를 수록 연재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후 리광인은 선후로 중공화통현위 당사 연구실, 연변일보사, 연변력사연구소, 절강월수외국어대학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학자로 성장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2만 5천리 장정길 현지 답사에도 올라보았다. 리광인교수는 우리 역사 연구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홍군장령 양명》, 《광복전 겨레작가론》 등 30여부의 평전과 연구저서를 펴냈고 100여편의 연구논문도 항일이야기, 력사문화기행, 수필 등 2,000여만자의 글을 펴냈다. 리광인교수의 우리 민족 력사 연구는 의연히 진행형으로 지금도 꾸준히 전국 각지 력사 현지 답사길에 오르면서 력사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날 좌담회 참가자들은 리광인교수의 그동안의 력사 탐구와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향후 우리 민족 력사 연구에 보다 새로운 획을 그어갈 것을 기대했다.

/안상근기자

흑토지의 이야기를 담은 현대 경극

〈토지장가〉



10월 16일과 17일, 길림성희극극원 경극단이 창작한 현대 경극 〈토지장가〉(土地长歌)가 길림성대중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극은 지난해 12월 북경에서 열린 ‘시대와 함께, 인민과 함께’ 신시대 우수 무대예술 작품 전시공연에 참가하여 큰 호평을 받고 돌아온 후 이미 10여차례 공연되었다.

경극 〈토지장가〉는 국가 예술기금 지원 프로젝트이자 길림성에서 중점적으로 제작한 신시대 무대예술 작품이다. 이 극은 ‘흑토지’를 키워드로, 동북 흑토지에 자리한 우가촌을 배경으로 농민 우희전이 흑토지를 굳건히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과학적인 재배를 통해 부유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희전은 여러차례 어려움에 직면한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향장이 휴양지 건설을 위해 경작지를 징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들은 오히려 흑토지에 대한 우희전의 초심을 더욱 굳건히 한다. 그는 료향장과 함께 힘을 합쳐 이 땅을 지켜낸다.

극은 우희전, 류라매, 우립추, 류장발 등 개성이 선명한 현대 신농민 군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다양한 극적 갈등을 통해 농민과 토지 사이에 맺어

진 피줄 같은 감정적紐대를 보여주고 전통 경극으로 농업 전환과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경극 〈토지장가〉는 길림성희극극원 경극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농촌 소재 대작이다. 이 극을 지속적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 배우들의 현지화와 공연의 상태화를 실현하기 위해 길림성희극극원 경극단은 ‘극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침으로 경극단내의 우수한 청년 배우들에게 주연을 맡겨 ‘흑토지 이야기’를 연기하게 함으로써 작품이 현지에서 뿌리내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극단은 ‘현지 훈련 강화’ 활동과 결합하여 배우들의 연기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고 작품을 정교하게 다듬어 배우들이 작품의 정수를 습득하도록 했다.

료해에 따르면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 이 극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극장은 할인가격 티켓을 제공한다. 경극 〈토지장가〉는 11월에 길림성대중극장에서 계속 공연될 예정이다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연’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알아가고 방문하도록 하며 흑토지의 이야기를 더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길림일보

